



광주서 '러시아 연극'을 만나다

람빠극장·극단 연우랑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14~16일 공동예술극장

극단 '연우랑' 이현기 대표는 지난해 군산에서 열린 전국연극제에 참여했다 작품 하나를 발견했다. 연극제 개막 초청작으로 공연된 러시아 람빠극장의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였다. 노 부부가 과거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사랑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이 마음을 움직였다.

마침 '연우랑'과 많은 작업을 해온 김민호(동신대 교수) 연출가가 러시아에서 공부한 게 떠올랐다. 김 연출은 유학 시절 람빠극장 관계자들과 인연이 있었다. 광주에서 람빠극장의 공연을 올리는 데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갔고, 소박하게나마 작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마침 올해 광주문화재단이 지원하는 해외 교류 사업으로도 선정돼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광주에서 러시아 배우들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역에서 러시아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귀한 공연이다. 특히 미술, 클래식 등 타 장르에 비해 해외 교류 작업이 드문 연극 분야에서 민간 극단이 중심이 돼 이뤄진 공연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극단 연우랑이 러시아 람빠극장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무대에 올린다. 15~17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의 배경은



오는 14~16일 광주 공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러시아 람빠극장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공연 모습.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직전의 어느 시골이다. 양봉을 하며 살아가던 그리고리는 심한 감기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다. 귀신이 자신을 데리러 왔다고 믿는 그는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아내에게 말한다.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고민하던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처음 만나 진정한 사랑을 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작품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진행된다. 러시아에서는 따짜이나 이바노브나 트레킨나가 연출을 맡고 노부부 역으로는 프레킨 블라디미르와 두보와야 루드미라가 출연한다. 광주에서는 김민호 교수가 번역과 연출로 참여하고 장도영·이나현 씨가 젊은 부부 역을 맡았다.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작품은 완벽한 형태의 공동 작업은 아니다. 첫 교류인데다 제작 여건이 여의치 않아 함께 고민하며 연습해 작품을 완성해 가는 대신 양국에서 자체 연습을 통해 작품을 완성한 후 '합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주인공인 노 부부와 젊은 부부가 극중에서 거의 부딪치는 장면이 없어 가능했다.

이번 작품은 소극장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러시아 배우들의 움직임을 세세히 살피고 한 작품 속에서 양국의 연극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람빠극장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나흐트카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극단으로 고전과 현대 희극들로 구성된 다양한 레퍼토리를 무대에 올리고 있다. 포항국제

바다연극제,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에서 공연하고 순천시립극단과 교류 공연을 진행하는 등 국내 연극계와도 인연을 맺고 있다.

"외국과의 교류 작업이 처음이다 보니 솔직히 완벽한 의미의 합동 공연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처음 접촉을 할 때 람빠극장 측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소극장 공연도 흔쾌히 받아들여요. 이번 공연이 앞으로 러시아와의 진정한 교류를 위한 물꼬를 트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우랑 이현기 대표는 "주변에서 격려도, 우려도 있다"며 "좀 더 좋은 작품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6590-41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원의 낭만 4월 공연 '鮮 클라비에'

13일 광주문화재단 소극장

매일 한차례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행복한 문화 충전-천원의 낭만' 4월 공연이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재단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의 주인공은 지난 2001년 결성된 피아노 그룹 '鮮 클라비에'(회장 서영화 조선대 교수)다. 조선대 음악교육과 및 대학원 출신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鮮 클라비에'는 다양한 기획 연주회를 열고 있다. '피아노가 피아노에 기대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대의 피아노를 연주하

는 형식으로 꾸며진다.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한근영·김지영),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노을·전수아),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조수미·박우현), 라흐마니노프의 '이탈리안 폴카'(심지은·최루시아), 리스트의 '헝가리안 랍소디'(서영화·박지현·황인화·장효진) 등이다. 사회는 피아니스트 이상록씨다. 이번 공연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광주시청 3층 대강당에서 한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티켓 가격 1000원.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영화 교수

빌리 홀리데이 탄생 100주기

'갓 블레스 더 차일드' 국내 발매

전설적인 여성 재즈 가수 빌리 홀리데이의 탄생 100주기를 기념한 베스트 앨범 '갓 블레스 더 차일드 : 베스트 오브 빌리 홀리데이'(God Bless The Child : Best of Billie Holiday)가 국내 발매됐다.

유니버설뮤직이 발매한 이 앨범은 최근 빌리 홀리데이 탄생 기념 헌정 앨범을 발표한 재즈 보컬리스트 호세 제임스가 직접 선곡한 빌리 홀리데이의 대표곡 9곡이 수록됐다. 광고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재즈 스탠더드 '어텀 인 뉴욕'(Autumn in New York) 등의 명곡이 한데 담겼다. /연합뉴스



'버블엔젤의 LOVE 버블쇼'

광주박물관 '봄 문화축제'

14~19일, 발굴현장 탐방·'박장대소' 등 다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꽃향기 가득한 봄을 맞아 오는 14~19일 6일간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15 박물관 봄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2015 박물관 봄 문화 축제'는 일상과 가까운 도심 속 박물관을 축제의 장으로 마련한 문화축제로, 봄과 예술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오는 14일 참가자가 큐레이터가 되어 보는 '박물관 체험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특별전 '조선청화, 푸른빛에 물들다'를 큐레이터와 함께 관람하는 '큐레이터와의 대화'(15일), 공예 전문가와 함께하는 '섬유공예로의 초대'(16일)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오는 17일에는 현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신창동

유적 발굴 현장을 직접 찾아가보는 '신창동유적 발굴현장 탐방'을 진행한다.

18일에는 '2015 박물관 봄 문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프리마켓 '박장대소'(博場大笑)가 열린다. 시민들이 판매자가 되어 장을 여는 프리마켓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불거리도 풍성하다. 18일 대강당에서는 '버블엔젤의 LOVE 버블쇼', 주말에는 가족들을 위한 주말영화극장 '따따가스카' '마녀배달부 키키'가 상영되며, 축제의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숲 해설사와 함께 봄을 만끽하는 '박물관 숲 해설- 흙그림, 봄을 물들이다'가 진행된다. 문의 062-570-705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진도북(춤)보존회 내드름 '아름다운 동행'

광주문화재단 토요상설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상설 공연으로 진도북(춤)보존회 내드름(대표 박병주)의 '아름다운 동행'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길놀이를 시작으로 한 해의 축원덕담을 담은 '비나리'와, 승무(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의 가락을 난타형식으로 선보이는 '승무북가락'을 들려준

다. 이어 무용곡 '한량무'를 선보이며 '얇은반 설정고' 공연과 춤사위와 가락이 즉흥적이고 신명 넘치는 '진도북놀이(전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가 펼쳐진다.

한편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은 무료이고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오는 18일 토요상설공연은 사)보성소리보존회 '보성소리의 맛'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식!!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